

20세기 물질문명에 대한 근대주의자들의 수용태도 비교

review on modernists' attitude on material culture of 20th century

채승진

연세대 원주캠퍼스

민경우

명지대학교

이순종

서울대학교

CHAE Sungzin

Yonsei Univ. in Wonju

MIN Kyungwoo

Myongji Univ.

LEE Soonjong

Seoul National Univ.

• Key words: Sports, Information Design, Datacast

1. 문화와 문명

독일인에게 문명은 문화의 세속화한 모습으로 비치는 반면 프랑스인에게 문명은 문화가 체계화(혹은 근대화)한 내용이다. 브로델과 칸트 두 사람의 견해를 보자. 칸트는 1784년 <세계시민적 의도에서 고찰한 보편사의 이념들: Ideen zu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uergerlicher Absicht>에서 "우리는 예술과 학문에 의해 높은 수준으로 교화되었으며, 우리는 번거로운 정도로 각종 사회적인 예의범절로 문명화하였다...도덕성의 이념은 문화에 속한다. 이 이념의 사용이 단지 명예욕을 위해 도덕의 모방과 외면적인 예절로만 흐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명화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²⁾ 당시 프랑스에게 문화적 열등감을 느끼던 독일로서는 물질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의지가 필요했고 그것은 문화에 있어 정신상의 강조로 나타났다. 브로델은 특유의 물질문화적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다룬만한 대상은 문화라기보다는 문명(물질문화)으로 봤다. "어느 곳은 사람이 거의 없는 대륙인 반면 또 다른 곳은 이미 너무 과밀한 지역이며, 어느 곳에서는 문명이 발달해있고 다른 곳에서는 문화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인간집단 사이의 결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지리적 차별성이 아마도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³⁾ 문화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의 문명이다. 즉 최적의 상태에 도착하지 않은, 그래서 성장을 확고히 하지 못한 단계의 문명이다.⁴⁾라고 말하는 그의 입장은 프랑스 중상주의와 백과사전파의 시각을 연장하고 있다. 물질문화에 대한 본격적 인식은 19세기 중엽 가시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근대 디자인운동 이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2. 근대 디자인과 공예, 조형예술의 시대정신

2.1. 1910-20년대⁵⁾

먼저 물질문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현대는 지난 수천년 간 비슷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인류 보편성(주의)의 강조되었으며 그 대척점에 있는 역사주의에 대한 반감과 권위와 속물근성을 나타내는 장식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났다. 곧바로 새로운 미적 기준에 대한 필요성 역설하면서 그 가능성을 새로운 기계기술에 대한 기대에서 찾았으며 산업혁명의 수혜에 따라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지배했다. 그러나 기계문명에 대한 경계의 시각이 먼저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모리스와 앙리 반데 벨데(Henry van de Velde 1863-1967)다. 당시 조형예술가 건축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벨데는 고대 그리스인이 기둥의 목적, 형태,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듯 물질주의적인 현대 세계의 사물의 목적, 형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네, 오늘날 사실 가장 단순한 물건들에서조차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물론 종교적, 자의적, 감상적 환상의 비약은 기생식물과 같다는 주장에서 보듯 과거와 단절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수많은 자유로운 개인들

이 존재에 낙관하였으며, 그리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충분히 많다면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 한스 펠치히(Hans Poelzig, 1869-1936): 순수한 외연적 수단으로 현대 건축의 문제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재료와 구조의 올바른 사용은 아무리 교묘한 장식적 부가물에 의해서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내면적 특징을 낳는다.

- 아돌프 로스(Aldof Loos, 1870-1933): 문화의 진보는 실용적 물건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자기의 얼굴이나 기타 자기 손에 닿는 것을 장식하려는 충동은 조형예술의 기원이다. 그리고 그것은 회화의 걸음이다. 모든 예술은 에로틱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내부로부터 충동에 못 이겨 벽에 에로틱한 심벌을 난필하는 자는 범죄자든가 퇴폐자이다. 장식으로부터 해방은 정신적 힘의 표시다. 만약 모든 물건이 물리적 수명만큼이나 미적 수명이 길다면 소비자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 헤르만 무테시우스(Hermann Muthesius, 1861-1927): 형태를 바른 것으로 하는 일이 현대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되어야한다. 참된 문화인에게 있어 형태의 조약성은 악취로 인한 불쾌감 같은 거의 육체적 고통마저 불러일으킨다. 독일 국민의 형태에 대한 감각이 깨끗한 침대나 셔츠에 대한 욕구강도의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우리의 문화 수준은 담보 상태에 머물 것이다.

- 안토니오 샴텔라(Antonio Saint'Elia, 1888-1916) 필리ippo 토마소 마리네티(Pilippo Tommaso Marinetti, 1914): 근대세계와 고대세계의 엄청난 대립은 종래에 없었던 모든 것이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에 유래한다. 오늘날 생활 속에는 고대인들이 그 가능성조차도 꿈꿀 수 없었던 여러 요소가 나타나 있다. 거대 동력기관, 고속통신 시설, 인구증가, 위생수준향상 등은 대호텔, 철도역, 광대한 도로, 거대한 항구, 밝은 전시장을 통하여 경쾌한 것, 실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신속한 것에 대한 감수성을 풍부히 하고 있다.

- 드 슈테일(De Stijl) 그룹, 1918: 낡은 시대 의식은 개인적인 것을 향하고 새로운 시대의식은 보편적인 것을 향한다. 전쟁은 낡은 시대의 내용으로 개인적인 것이 모든 영역에서 우세한 것을 파괴한다. 새로운 시대의 예술은 보편성과 개성의 균형 잡힌 관계를 나타낸다. 새로운 시대의식은 외면적 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새로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통, 종교, 개인의 지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의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감하고 삶과 예술과 문화의 국제적 통일 형성에 나서야할 때다.

- 에리히 멘델존(Erich Mendelsohn, 1887-1953), 1919: 오늘날 얼핏 봐서 끈끈하게 흐르는 완만함도 후세에 보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미래를 앞에 놓고 역사의 위대한 성과는 스스로 퇴색하며 현존하는 즉시성은 중요성을 잃는다. 무엇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비전의 도취 속에서 생겨나야 가치가 있다. 보편성을 포용하는 원초적 활력이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다. 결정적인 인류발전의 시대적 특성은 하나의 시대정신의 의지로 당시 알려진 세계전체를 통일하였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을 넘어

모든 민족의 행복을 가져와야한다. 특정민족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인터내셔널리즘은 국가적 한계를 포용하는 초국가적 미학을 창조할 것이고 자유로운 인성만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문화를 세울 것이다.

2.2. 1920-40년대7

세계 제 1차대전은 기계화한 전쟁의 참상을 알려줬지만 아직 기계와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계의 전망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 등 강조하고 여전히 세계시민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기대는 컸으며 개인주의는 비판받았다.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주거 환경 개선 역설과 드 슈테일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조형원리 제시, 그리고 도시 건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공학적 요건과 이슈가 구체적 제시되었다. 선언적 구호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문제해결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점차 정신적인 문제나 문화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운동단체와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베를린 예술운영위원회-the Arbeitrat fuer Kunst, 1919년

1. 국가적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모든 건축활동의 공공성을 인식할 것: 건축에 있어 관리의 특권을 제거하고 자유가 침해되지 않게 하고 도시, 가로, 주거단지 등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
2. 예술원, 건축아카데미 및 기존형태로서 프러시아 국립예술위원회 해체: 나라의 간섭없이 모든 생산적인 예술은 자신의 활동영역을 새로이 제정하여 만든 단체로 대체
3. 건축, 조각, 회화 및 수공예 교육전반을 나라의 감독에서 해방할 것.
4. 민중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박물관의 진흥, 강연이나, 전시회안에서 민중 전체에 봉사하도록 끊임없이 테마를 바꾸는 전람회 시행. 과학적 재료 연구조사와 수집품의 전시 및 컬렉션을 위한 국가 기금의 조성

5. 예술적으로 무가치한 모뉴먼트, 가치없는 조잡한 건물의 철거, 전쟁박물관 건립 중지
6. 입법조치를 수반한 예술 증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국가적 센터 설립

- 구성주의 기본원리-basic principles of Constructivism, 나옴 가보, 안트완느 펠스너, 1920

1. 공간을 형성하는 조형 표현으로 폐쇄된 볼륨을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
2. 3차원적인 것과 건축적 입체를 구축에 있어 닫혀진 덩어리(mass)의 사용을 거부한다. 반대로 조형적 입체는 입체기하학적으로 형성할 것이다.
3. 회화적 요소로서 장식적 색채를 3차원 구성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4. 장식적인 선을 거부한다. 모든 선은 표현하고자하는 입체의 내적 힘의 방향을 정의하는데만 사용되어야한다.
5. 조형요소에 있어 정적인 요소로는 만족할 수 없다. 조형에서 움직임은 환영이 아닌 동적인 리듬의 적용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채용되어야한다.

- 르 꼬르뷔지에, 1920

1. 엔지니어의 계산된 기하학적 형태는 수학을 통한 즐거움을 주며 이것이 참된 예술적 진진이다.
2. 사회라는 기계장치는 근본적으로 이가 어긋났으므로 역사적으로 파국이나, 개선이나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 드 슈테일, 1922-23

1. 전람회 폐지, 그 대신 전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2. 창조적 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상의 교류
3. 모든 예술에 대한 보편적 조형수단의 전개
4. 예술과 생활의 분리 폐지(예술이 생활이 된다)

5. 예술과 인간과 분리 폐지
6. 건축은 산업과 기술로 형성되는 조형적 통일체로 이는 새로운 양식의 태어남이다.
7. 공간이 법칙과 그 무한한 변화(공간의 대비, 부조화, 보완)는 균형된 통일체로 융합될 수 있다.
8. 공간과 시간에 있어 색채의 법칙은 하나의 요소로서 이들의 상호조화가 하나의 새롭고 실질적인 통일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
9. 공간과 시간을 색채와 병용 사용하여 두개의 요소가 가시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이 생겨난다.
10. 척도, 비례, 공간, 시간과 재료 사이의 관계에서 통일체를 구성하는 결정적 방법이 생겨난다.
11. 폐쇄적인 요소(벽체 등)의 파괴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의 2차원적 구분을 지양한다.
12. 색채가 건축에서 차지하는 정당한 위치를 부여할 때 건축적 구성에서 분리된 회화(타블로로서 그림)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
13. 파괴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밝았다. 그것은 구성의 시대다.

- 반되스부르크, 반 에스테렌 Theo van Doesburg, Cor van Eesteren, 1923

실제 생활과 아무 관련없는 <예술>이란 개념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대신 환경의 확고한 원리에 유도되는 창조적 법칙에 따라 사물을 형성해야한다. 그 법칙은 경제, 수학, 기술, 위생학 등에서 나온 것으로 이들이 조형에 새로운 통일을 부여할 것이다.

- 발터 그로피우스-바이하우스 생산품의 원칙, 1926

1. 가정 기구나 가구류는 합리적 관계를 가져야한다.
2.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조사해야 그 목적에 완전히 적합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3. 기계가 살아 돌아가는 환경을 단호히 인정하라.
4. 로맨틱한 억지해석이나 낭비적 경솔함 없이 고유한 현실적 법칙에 의하여 설계할 것.
5.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가는 기본 형태나 특성에 한정 할 것.
6. 다양함 속의 단순성, 공간, 재료, 시간, 비용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

-하네스 마이어 Hannes Meyer, 1928

건축이란 조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기술적, 심리적, 경제적 조직이다.

- 휴고 헤링, Hugo Haering, 1932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엔지니어의 작업은 경제적 효용의 한계 내에서 물질적 의미에서 성능을 발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성과가 종종 별도의 표현가치를 수반하나 이것은 이차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건축가는 하나의 형태(Gestalt), 정신적으로 생생하고 충실한 작품, 하나의 이념, 문화에 속하고 이에 봉사하는 대상을 만든다.

- 1) Kant, Immanuel: 1724.4.22~1804.2.12
- 2) 노베르트 엘리아스 Nobert Elias: 1897-1990, <문명화 과정 I>, 한길사112쪽
- 3) Braudel, Fernand: 1902.8.24~1985.11.28
- 4)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 까치, 23쪽, 131쪽.
- 5) 건축선언문집 Program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Ulrich Conrads, The MIT Press
- 6) <응용미술에 대한 담화> 1903년
- 7) Conrads의 책